

27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불교철학과 민주주의

이 종 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불교철학과 민주주의

이종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1

서론

불교는 종교이자, 철학이다. 진리를 깨달아 불교를 창시한 교조 붓다가 있고, 붓다가 펼친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단이 있으며, 인간의 욕망을 기복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종교이지만, 인간-중생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사유하고 그 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철학의 사유와 실천의 핵심에는 삼법인과 사성제, 중도와 연기법이 있다. 삼법인(三法印)은 인간을 비롯한 일체의 생명과 사물은 끊임없이 생멸 변화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인간-중생의 삶을 집착과 고통으로 파악하는 일체개고(一切皆苦),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므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는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일러 말한다.

사성제(四聖諦)는 인간-중생의 현실세계는 실존 자체가 괴로움(苦)이며, 그 고통의 원인(集)은 마음속의 번뇌와 집착이 쌓여서 만들어지고, 고통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滅)로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리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 길(道)로 이루어진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원리를 일컫는다.

중도(中道)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바른 길이라는 의미로서 구체적으로는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정(正定)·정념(正念) 등의 팔정도(正道)로서 설명한다.

연기법(緣起法)은 불교의 우주론으로 “모든 존재는 이것이 생(生)하면 저것이 생(生)하고, 이것이 멸(滅)하면 저것이 멸(滅)한다.”는 만물의 인과관계와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무명(無明)에서 시작하여 행(行)·식(識)·명색(名色)·육처(六處)·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를 순관-역관하는 12연기법이 대표적이다.

불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삶의 고통과 그 원인,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실존의 철학이다. 불교는 해탈-절대자유와 열반-절대평화, 혹은 만민평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상정하는 사상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론을 중시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그 이해 방식 또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꼽히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정치이념 또는 정치제도”라는 존 듀이(J. Dewey)의 정의이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시민에 의한 통치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불교와 민주주의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점,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집요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 짧은 글에서 불교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내 연구역량과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불교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02

고통의 치유학 불교

불교는 인간-중생의 세계를 고통으로 파악한다.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며,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앞의 일곱 가지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집착이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삼법인 중의 일체개고(一切皆苦)에 대한 설명이다.

고(苦)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태어난 모든 생명은 소멸한다. 간절히 원한다고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한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고인 까닭은 그것이 시간적으로 무상(無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일체 사물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지고 항상 변화하며 찰나(刹那)의 순간에도 정지하는 일이 없다. 우리들의 젊음과 아름다움도, 부와 명예도 영원하지 않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그물에 걸리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자아(自我)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런 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기 쉽다. 집착은 세상에 실체, 즉 불변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발생한다. 인간은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일체 존재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자아 또한 사실은 실체가 없는 제법무아(諸法無我)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연법-연기법으로 운행되는 세상에서 제행이 무상한 가운데 피어나는 모든 존재는 무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기하기 때문에 무상이며 무아인 것이다. 제법무아는 연기법에 대한 공간적인 해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법무아는 한 마디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존재는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인연 따라 연기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니까야(아함경)』에 실려 있는 이야기이다.

붓다 재세 시절에 고타미라는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었다. 고타미는 붓다를 찾아와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붓다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온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고타미는 겨자씨를 구하기 위해 온 마을을 돌아다녔다. 한 줌의 겨자씨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고타미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고통 받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죽음은 모든 존재에게 다가오는 숙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고타미는 붓다가 자신에게 내렸던 처방의 의미를 이해하였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대로지만 자식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데서 오는 고통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고따미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물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였기 때문이다. 고통을 고통으로 마주하며 여실지견(如實知見)하였기 때문이다. 붓다가 고타미에게 처방한 약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이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아니었다. 고통도 즐거움도, 불행과 행복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절망에 빠진 고타미에게 내린 붓다의 처방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느 것이건 '내 물건', '내 소유(所有)'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삼법인과 사성제의 불교철학은 고통의 치유학이라 할 수 있다.

03

관계학의 보고 불교철학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며 지금은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틱 낫한이 어느 강연에서 “책을 보면서 구름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구름이 없다면 비를 만들지 못하고, 비가 없다면 나무는 자라기 어려울 것이며, 나무가 없다면 종이를 만들지 못하고, 종이가 없다면 책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 세상의 존재는 반드시 그것이 생겨난 원인(因)과 조건(緣)하에서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삼라만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 서로에게 의지하여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우주 만물 중에 홀로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서로 의지하여 상생하면서 생성하는 존재할 뿐이다. 불교는 우주를 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로 관계로서, 연기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붓다의 존재론은 생성의 존재론이다. 세계에 대해 단적인 존재의 입장과 단적인 무의 입장의 중도를 취한다. 『쌍웃따 니까야』에서 붓다는 “세계의 발생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 단적인 존재라는 관념은 없다. 세계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 단적인 무라는 관념은 없다.(...) ‘모든 것은 있다’가 하나의 극단이며, ‘모든 것은 없다’가 또 하나의 극단이다. 이런 양 극단을 벗어나 중도를 취하는 것이 여래의 법이다.” 이 생성은 곧 12연기의 생성이다. 신영복이 쓴 나의 동양고전 독법『강의』에서 강조하듯 연기론은 그 자체가 관계론이다.

붓다는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모두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갔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중도를 유교의 덕목으로 칭송되는 중용과 비교해 보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겠다. 붓다가 가르친 중도는 유교의 중용(中庸)과 다르다. 중용과 중도가 상반된 대립의 구도에서 취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립의 내용이 다르다. 대립에는 상대적인 대립과 모순적인 대립이 있다. 예를 들면 ‘많다’와 ‘적다’, ‘크다’와 ‘작다’, ‘높다’와 ‘낮다’ 등은 상대적인 대립이다. 상대적인 대립은 그 중간이 있으며, 그 중간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중용이다.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알맞은 것, 크지도 작지도 않는 적당한 것,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적절한 것이 중용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순대립에는 중간이 없다. ‘있다’와 ‘없다’, ‘옳다’와 ‘그르다’, ‘같다’와 ‘다르다’는 모순대립이다. ‘있다’와 ‘없다’ 사이에는 중간이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적당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붓다는 이러한 모순대립의 상황에서 중도를 선택하도록 가르쳤다.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의 두 명제는 모순 대립하는 명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에서는 모순 대립하는 명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붓다는 이런 모순 대립하는 명제 자체가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사견(邪見)이라는 것을 깨닫고, 둘 다 버리는 것을 가르쳤다.

어느 날 붓다는 제자들과 강가를 거닐다가 뗏목이 강 가운데를 흘러가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 뗏목이 이쪽 강변에도 걸리지 않고, 저쪽 강변에도 걸리지 않고 흘러가면,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저 뗏목처럼 모순 대립하는 두 견해를 떠나서 수행하면 열반의 바다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도는 강의 중간이 아니라 양쪽 강변을 벗어난 곳을 말한다. 영원히 만날 수 없이 대립하고 있는 강변이 모순 대립이라면, 그 강변 사이를 흘러가는 것이 중도라 할 수 있다. 일치하지 못하고 모순 대립하고 있는 사견이 두 강변이라면, 강변의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고 그 사이를 흘러가는 강물이 중도이며 정견(正見)이라고 붓다는 가르쳤다.

나는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로 ‘노동자해방투쟁동맹’, 이른바 ‘CA그룹’이라는 정파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사회성격론, 정세관, 전술론이 서로 다른 운동권 내 ‘NL그룹’ 과도 대립했지만, 당시 김영삼, 김대중이 이끌던 제도 정치권의 ‘신한민주당’에 대해서 유난히 비판적이었던 생각이 난다. 우리 그룹은 반동 부르주아지(당시 민주정의당), 리버럴 부르주아지(당시 신민당 등 보수야당), 그리고 피엘(노동자계급 중심의 민중)의 3계급 정립론에 입각한 정세 분석을 틀어대면서 ‘파쇼하의 개헌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무장봉기’의 사회심리적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전술로 대중을 선동하려 하였다. ‘말의 자유’와 ‘직선제 개헌’ 쟁취가 바람이었던 당대의 대중이 공감하기 어려운 주장을 과도하게 펼친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룹은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어 결국에는 여러 갈래의 분파로 분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시민들의 준비 정도와 역량에 근거하여, 그이들의 마음과 바람을 바르게 읽는 ‘중도의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당대의 주류 운동권이 제도권 야당 중심의 ‘중용의 길’과 ‘타협의 길’을 선택하면서 ‘6월항쟁’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말이다.

04

불교의 계율논쟁과 승단 민주주의

붓다의 출가 제자들은 무리를 이루어 한곳에서 수행 생활을 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보니 자연 논란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계율을 제정했는데 개인적인 규범은 계, 단체생활의 규범은 율이라고 한다. 재가자나 출가자 모두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규범으로 ① 살생하지 말라(不殺生), ② 도둑질 하지 말라(不偷盜), ③ 음행을 하지 말라(不邪淫), ④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⑤ 술 마시지 말라(不飲酒)는 5계 외에 승단의 출가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250계를 지키게 했다.

승단이 원만하게 화합하고 계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승단 내 제도로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라는 집회가 있었다. 포살은 공동체생활 속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위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자신이 그에 따라 생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의식이며 매월 보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자는 안거가 끝나는 날 저녁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행하는 일종의 토론회로서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을 지적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스스로의 성찰과 자정을 통해 교단이 청정한 수행자의 집단이 되도록 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포살과 자자를 통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붓다의 깨달음 이후 9년 만에 꼬삼비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경전을 가르치는 장로가 화장실에 갔다가 쓰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고 남겨둔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마침 다음에 화장실에 간 계율 담당 장로가 남은 물은 버리는 것이 계율에 맞다고 지적하자 장로들끼리는 서로를 낮춤으로서 허물없이 지나갔지만, 이를 놓고 제자들이 두 패로 갈라선 채 서로를 욕하고, 주먹질까지 하는 큰 분쟁으로 비화했다. 붓다가 “비구들이여, 싸움을 그만두어라. 다투지 말라. 원한은 원한에 의해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을 버림으로서만 풀어진다.”고 간곡히 타일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꼬삼비 분쟁을 푼 것은 결국 재가자들이었다. 비구들의 다툼 가운데 붓다가 말없이 그곳을 떠나자 재가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서로 화합하지 못한 비구들에게 ‘공양을 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말썽을 일으킨 비구들의 승복을 받아 낸 것이다.

케사푸타에 사는 칼라마 장자가 붓다에게 와서 물었다. “케사푸타에 오는 수행자들과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견해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의심스럽게 여겨집니다.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두 의견 사이에서 흔들리고 맙니다.” 붓다가 답했다. “칼라마 장자여, 네가 의심을 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네가 동요하는 것은 당연하다. 칼라마 장자여, 잡담이나 소문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네게 한 말로 판단하지 말고, 전통적인 가르침의 권위로도 판단하지 마라. 스승을 따르는 경외심으로도 판단하지 마라. 그 대신 네 마음속으로 어떤 가르침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서 무언가 잃어버리고 또한 고통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는 네 자신을 믿고 그 가르침을 거절해야 한다.” 붓다는 소문난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스스로 행한 다음에 합당한 진리라고 판단되면 그를 따르도록 가르쳤다.

05

중생이 앎으니 나도 앎는다 - 만민평등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다. 사람들은 붓다가 이 세상에 출현하면서 외쳤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탄생계만 기억하지,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즉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는 인간해방 선언을 기억하지 못한다. 불교가 세계종교가 된 이유는 그 가르침이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이었기 때문이다. 보편성과 대중성은 곧 늘 당대의 현실과 바람에 지혜와 자비로 응답했을 때 획득되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희론(戲論)이 아니다. 맹목적으로 와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법이며, 누구라도 와서 보라는 가르침이다. 그 결실은 현실에서 곧바로 사실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향상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이와 같이 초기경전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이 ‘지금’ ‘여기’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삶을 ‘향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붓다와 제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 했던 것이다.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법을 설하라. 또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더러움이 적은 이도 있으니 법을 들으면 깨달을 것이다.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웰라로 가리라.” 붓다의 전법선언에는 보편 법을 전하는 목적과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편언어로 법을 설명하라는 것이다.

붓다가 활동했던 고대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가 공고한 시대였다. 그러나 붓다는 브라만과 왕의 세속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은 물론이고 수드라 계급과 카스트에 속하지도 못한 불가촉천민도 승단에 받아들였다. 해탈과 열반은 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발사 출신의 우빨리, 똥 치는 사람 나디는 하층민 출신으로 붓다 승단에 출가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다. 여성들도 출가를 허락하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는 수드라 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였다. 앞에서 언급한 고타미를 비롯한 마하빠자빠띠, 케마, 옷빨라완다, 담마닌다 등이 그이들이다. 말하자면 붓다는 계급해방과 양성평등을 실행한 선구자였다.

불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실존적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대자유와 만민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장 현실적인 종교이다. '못생명의 고귀함'을 역설하는 불교의 철학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바탕과 맞닿아 있다. 민주주의의 목표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공동체사회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우주의 모든 생명과 만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생이 없으니 나도 않는다.

참고문헌

- 붓다. 법정 옮김. 2005. 『숫타니파타』. 이레
- 전재성 역주. 2007. 『쌍웃따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전재성 역주. 2011. 『디가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법륜스님. 2010. 『인간 붓다』. 정토출판
- 무비스님. 2017. “중도는 중용과 어떻게 다른가?”. 『불광미디어』
- 턱낫한. 2003. 『반야심경』. 장경각
- 이정우. 2017. 『세계철학사2_아시아세계의 철학』. 도서출판 길
- 강신주. 2012. 『철학 & 철학』. 그린비
- 신영복. 2006. 『강의』. 돌베개
- 조성택. 2016. “한국불교는 ‘전태일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전태일 정신과 불교』
- 손혁재. 2001. “참여민주주의와 불교” 『불교평론』
- 위키백과. 2018. 『불교의 사상』

불교철학과 민주주의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8년 7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